

작가약력 및 작품해제 Catalogue Entries

1990s

4	강동석	20	Kang Dong-Suk
5	강승희	21	Kang Seunghee
6	김구림	22	Kim Kulim
7	김호득	23	Kim Hodeuk
8	민정기	24	Min Joungki
9	박숙희	25	Park Sookhee
10	신범승	26	Shin Bumseung
11	신학철	27	Shin Hakchul
12	양만기	28	Yang Mankee
13	양주혜	29	Yang Juhae
14	윤석남	30	Yun Suknam
15	이건용	31	Lee Kun-Yong
16	임근우	32	Lim Geunwoo
17	임종두	33	Leem Jongdoo
18	차대영	34	Cha Daeyoung
19	최민화	35	Choi Minhwa

강동석(1963-)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성대학교 조형예술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7년 제17회 한국현대판화가협회 공모전 우수상, 1999년 제1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2023년 제19회 송혜수미술상 등을 수상했으며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주요 판화전시 제26회 《홍익판화가협회전》(1998) 및 제24회 《서울현대미술제》(1998) 등에 참여했다.

작가는 목판화를 주요 매체로 활용해 인물의 얼굴과 표정, 자연의 이미지를 작업의 소재로 삼아왔다. 손으로 직접 새긴 선과 밀도 높고 역동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 대상의 감정을 드러내고 판화의 조형성을 확장했다.

〈목—나무그림자 II〉(1999)는 제1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수상작으로, 목판에 깔때기와 솔 등을 이용해 먹물을 뿌려 만든 밑그림을 바탕으로, 먹물의 흔적을 칼로 다듬어 새의 날갯짓을 표현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지금은 갇혀 있지만 언젠가는 비상할 새의 움직임을 표현했다”고 언급하며, “먹물이 튼 흔적까지 나무판 위에 새겨 역동적이면서도 정교한 느낌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강승희(1960-)는 제주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1994), 《가나가와국제판화트리엔날레》(1998) 등 국내외 주요 판화전에 참여했으며, 1988년 제5회 《공간국제판화비엔날레》 대상, 1991년 제1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판화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홍익판화가회전》(1987), 《서울현대미술제》(1988), ‘신조형회’의 《B35-’90 초대전》(1990)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오리진회화협회전》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1980년대 판화를 통해 새로운 형상성을 탐구해온 작가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새벽’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도시의 모습을 담은 동판화를 꾸준히 제작했다. 서울로 이주한 후 고향 제주를 그리워하던 작가는 새벽 조깅 중 마주한 서울의 풍경에서 한라산을 떠올리게 하는 덩어리감과 고요를 발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새벽 5시 30분—1991년 여름〉(1991)은 제1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판화 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금속판을 부식시켜 이미지를 만드는 에칭과 에퀴틴트 기법을 활용해 섬세한 선과 미묘한 명암의 변화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새벽녘의 고요하고 정적인 풍경을 화면에 담아냈다.

김구림(1936-)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 1970년대 일본에서 판화와 비디오 아트를 실험하였고, 1984년 뉴욕 아트 스튜던츠 리그에서 판화를 전공했다. 회화, 설치, 영상, 퍼포먼스를 넘나들며 장르의 해체를 실험해온 그는, 한국 최초의 메일 아트(Mail Art)라고 평가받는 <매스미디어의 유물>(1969) 및 실험영화 <1/24초의 의미>(1969)를 발표하고, 1969년 ‘AG 그룹(한국아방가르드협회)’을 창립했으며, 1970년 ‘제4집단’을 이끄는 등 한국 전위미술의 흐름을 주도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한국미술—오늘의 방법전》(1979), 《1980 서울 방법전》(1980)에 참여했으며, 1994년 동숭갤러리와 동시에 개최한 《김구림 전》 및 2000년 기획초대전 《김구림: 현존과 흔적》을 개최했다. 최근에는 《음과 양》(가나아트센터, 서울, 2021) 및 《김구림》(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3) 등 개인전을 개최했다.

작가는 1970년대 개념적 작업과 1980년대 초의 콜라주 작업 등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실험을 지속하며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동양의 사상이자 이미지의 생성과 소멸의 원인으로서의 ‘음’과 ‘양’을 중심 개념으로 삼아 상반된 요소들의 관계와 순환을 탐구한 <음양> 시리즈를 지속해왔다. <음양> 연작 중 하나인 <음양 99-S, 207>(1999)은 작가가 미국 체류 시기에 제작한 작품이다. 화면을 좌우로 나누어 서로 다른 이미지와 표현 방식을 병치하고, 곳곳에 배치된 노랑과 주황의 원형으로 회색조의 풍경과 강한 색채를 대비시켜, 상반된 요소들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이 작품은 이질적 요소들이 서로 스며들고 동시에 공존하면서 그의 음양 사상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시각화한다.

김호득(1950-)은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 동양화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관훈갤러리에서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35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현대미술초대전》(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7), 《소장품 특별전: 균열 II—세상을 보는 눈/영원을 향한 시선》(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8) 등 주요 기획전에 초대되었다. 작가는 현실의 폐해나 비리에 도전하고 비판하는 경향을 지녔던 ‘십이월전’, ‘제3그룹’과 한국화의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목표로 한 ‘묵조회’에서 활동하며, 이들 동인이 아르코미술관에서 개최한 정기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이후 아르코미술관 기획전 《구름》(2004), 《대학로 100번지》(2009)에 초청되었으며, 1993년 제4회 김수근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작가는 전통 수묵의 필선과 번짐, 발묵과 파묵, 선염 등의 묵법을 현대적 조형 언어로 표현하고, 한지, 광목천, 캔버스, 하드보드 등을 활용해 동양화 재료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또한 바위나 폭포 같은 구상적 자연에서 점차 비가시적인 바람이나 빛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여, 자연의 기운과 움직임을 선과 먹의 흔적으로 표현해 오며 수묵을 통한 파격적인 실험 정신을 이어왔다.

〈바람〉(1998)은 하드보드 위에 먹가루를 흩뿌려 수묵의 물성과 추상적 가능성을 탐구한 작품이다. 화면에 흩어진 먹가루는 번짐과 농담의 변화로 유동적인 흔적을 형성하며,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움직임을 연상시킨다. 작가는 먹의 번짐과 물질적 흔적을 활용하여 산과 계곡, 바람과 기류 등 자연의 움직임을 추상적으로 환기한다.

민정기(1949-)는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70년대 이후 현실의 폐해나 비리에 도전하고 비판하는 경향을 지녔던 동인 ‘십이월전’, ‘제3그룹’에 참여했고, 1979년 결성한 민중미술 단체인 ‘현실과 발언’의 창립 동인으로 활동했다. 금호미술관, 국제갤러리, 양평군립미술관에서의 개인전 및 제13회 광주비엔날레와 경기도미술관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으며, 2006년 제18회 이중섭미술상을 수상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십이월전’, ‘제3그룹’ 등의 동인이 주최한 다수의 정기전에 참여했고, 2004년 대표작가전 《민정기—본 것을 걸어가듯이》와 기획전 《구름》(2004), 《대학로 100번지》(2009)에 초대되었다.

작가는 1980년대 대중적 이미지를 차용해 민중의 삶과 한국 사회의 현실을 회화로 담아냈다. 1980년대 말 양평으로 이주한 후, 현실을 풍자하던 작업은 점차 풍경과 장소에 대한 탐구로 확장되었고, 산과 강, 마을을 답사하며 장소가 간직한 역사와 삶의 흔적을 탐구하는 산수(山水) 연작을 전개했다. <통방산>(1992)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작가의 작업 세계의 변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작품은 양평 통방산 일대의 산과 지형을 답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의 명암을 벗어난 우리 땅의 본연의 모습을 굵은 붓질을 이용하여 부감법으로 담아냈다.

박숙희(1938-)는 서울대학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판화를 배운 뒤 뮌스터 빌헬름대학교에서 미술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독일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한국섬유미술의 대표 협회인 ‘한국섬유미술가회’의 회장을 역임했고 1992년 한국공예가협회 목양공예상을 받았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이신자와 함께 《제1회 전국 공예가초대전》(1974) 및 ‘한울회’의 《한울전》 등에 참여하며 한국 섬유미술의 제도적 기반과 국제적 교류에 기여했다.

작가는 전통적인 실 중심의 직조에서 벗어나 한지, 붓대, 마사끈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며 섬유미술의 조형 가능성을 확장했다. 〈베니스의 물결〉(1994)은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에 출품된 작품으로, 처음으로 직조기계를 활용하여 제작한 작품이다. 가는 실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띠를 연속적으로 병렬시키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직조 형식을 시도했으며, 실을 다 짠 다음 상단에 사각형 모양으로 구멍을 내어 화면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신범승(1942-)은 황해도 사리원에서 태어나 해방 이후 가족과 함께 충남 서산으로 이주했다.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와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러시아 국립 게르첸 사범대학교에서 미술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까지 미술 교사로 재직했고, 이후 2008년까지 동서울대학교 미술과 교수를 역임했다. 1978년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1992년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1999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신기회’, ‘한국수채화협회’ 등 여러 미술 단체전에 참여하였고,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다수의 《신기회전》을 비롯하여 《한국의 수채화전》(1984), 《제6회 홍익 M.A.E전》(1994)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신범승은 서양화의 재료와 기법을 기반으로 구상과 추상을 오가며 독창적인 회화 언어를 발전시켜왔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한국의 자연과 풍광, 일상적 대상은 자유로운 붓질과 강렬한 색채 안에서 서양화의 조형 언어와 한국화의 표현 감각이 결합된 방식으로 나타난다. 1992년 제1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양화 부문 대상 수상작인 <아—산실92>(1992)는 작가가 도자기와 도자기를 굽는 가마에서 느낀 인간의 탄생과 회화성을 캔버스에 옮긴 작품이다. 화면에서는 전통적 소재에 대한 관심과 속도감 있는 붓질, 토속적인 색채의 구성 감각이 돋보인다.

신학철(1943-)은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다수의 ‘서울방법 작가회’ 정기전에 참여했다. 1981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1995년, 2002년 《광주비엔날레》 등 국내외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개인전 《신학철 초대전》(서울미술관, 서울, 1982), 《신학철 : 우리가 만든 거대한 상(像)》(아르코미술관, 서울, 2003) 등을 개최했다. 제1회 민족미술상(1991), 제16회 금호미술상(1999) 등을 수상했다.

작가는 1970년대의 오브제 및 콜라주 작업, 1980년대 이후의 포토몽타주 작업 등 다양한 형식적 시도를 통해 민중의 애환과 희망을 표현해 온 민중미술의 대표 작가로, 〈한국 근현대사〉 연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역사적 사진과 대중매체 이미지를 재구성해 민중의 삶과 시대의 모순을 집단적 형상으로 시각화하며, 역사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1980년대 초부터 작가는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과 인물, 사물의 이미지를 캔버스에 구성하는 작업을 전개했다. 그의 작업에는 여러 시간대와 사건, 사람들이 하나의 화면 안에 ‘쌓아 올려지며’ 이질적 공간들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한국현대사 802〉(1994)는 작가의 이러한 독창적 스타일이 엿보이는 작품으로, 한국 현대사의 장면들을 포토몽타주 형식으로 재배치하여 서로 다른 오브제들이 뒤엉켜 환기하는 서사와 추상적 왜곡의 덩어리진 감각이 화폭의 밀도를 높인다.

양만기(1964-2020)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출생하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덕성여자대학교 서양화 전공 교수를 역임했고, 1996년 제1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2008년 제8회 하종현미술상 작가상을 수상했다. 작가는 ‘오리진회화협회’와 ‘홍익판화가협회’에서 활동하며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오리진회화협회전》, 《홍익판화가회전》 등 동인 정기전에 참여했고, 《한국현대미술 신세대흐름전: 프레임 혹은 시간—사진으로부터》(1998), 《이미지 미술관》(2000) 등 기획전에 참여했다.

작가는 회화에서 출발하여 컴퓨터, 영상, 설치, 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매체와 형식으로 작업 영역을 확장했고, 1990년대 이후 회화와 디지털 기술의 경계를 허물며 실험적인 미디어 작업을 선보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2009년 서울 스퀘어 외벽에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 작품 <미메시스-스케이프>가 있다.

제1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수상작 <다윈의 정원>(1996)은 생명체의 생성과 소멸을 주제로 하는 작품으로, 수상소감에서 “자연에서 시작되는 인간의 문화환경과 다윈의 진화론적 정신에서 작품세계가 시작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캔버스에 스티로폼을 입히고 폴리코트를 더해 만든 판 위에 화석 이미지의 부조적 마티에르와 형상, 텔레비전 화면 등으로 과거와 현재의 세계를 연결시켰고, 화판 전체에 화석 이미지와 자연의 순환을 나타내는 무늬를 더했으며 고사리의 사진을 담은 모니터를 접목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을 “물성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평면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했다. <다윈의 방>, <다윈의 대지> 등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영감을 얻은 시리즈 중 하나인 이 작품은 자연 이미지와 인간, 사물의 흔적이 오버랩된 그의 작업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양주혜(1955-)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에 입학한 뒤 프랑스로 건너가 마르세유 뤼미니 미술대학을 졸업했고, 파리8대학교 조형예술과 DEA 과정을 수료했다. 1983년 공간화랑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1987년 국립현대미술관 ‘이달의 작가’로 선정되었고, 1990년 석남미술상을 수상했으며, 성곡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등에서 열린 주요 기획전에 참여했다. 또한 아르코미술관 기획전 《디아나의 노래》(2001), 《공원 쉼표 사람들》(2003) 및 개인전 《양주혜: 길 끝의 길》(2005)을 통해 작품 세계를 선보였다.

작가는 점과 선이라는 기본적인 조형 요소를 반복하며 회화, 오브제, 설치를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 세계를 탐색해 왔다. 특히 색점과 바코드를 활용한 평면과 설치 작업이 대표적이며, 선 긋기, 점 찍기, 빗금칠하기 등 단순한 조형 언어를 건물의 벽, 기둥 등의 건축 구조와 연결하여 작업의 범위를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해왔다.

〈무제—노방 조각이불〉(1999)은 작가의 외할머니가 남긴 조각이불을 바탕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작가는 더 이상 이불로 쓸 수 없고 삭아 없어질 조각 천의 시간을 연장하고자, 사라져가는 사물에 물감을 바르고 점을 찍은 뒤 바니시를 입혔다. 낡은 천 조각 위에 더해진 색과 점, 반복된 손의 흔적을 통해 작가는 쓰임을 다한 사물을 삶의 영역으로 다시 부르고, 시간의 층위를 색점과 같은 새로운 조형 언어로 드러낸다.

윤석남(1939-)은 만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의 프랫 인스티튜트와 아트 스튜던츠 리그 오브 뉴욕에서 수학했다. 《어머니의 눈》(금호미술관, 서울, 1993), 《여성과 현실전 : 웃는 여자들》(21세기 화랑, 서울, 1994) 개인전을 비롯하여, 《언니가 돌아왔다》(경기도미술관, 안산, 2008), 《접속하는 몸: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4) 등 주요 개인전과 기획전에 다수 참여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작가의 첫 개인전 《윤석남 전》(1982)을 개최하였고, 인간 존재의 예술적 표현에 주목한 동인 ‘인간전’의 전시 《제3회 인간전》(1984)을 비롯하여, 《전국민족미술인연합 창립기념전》(1995), 개인전 《윤석남 1,025: 사람과 사람없이》(2008) 등에 참여했다.

1980-90년대 ‘시월모임’, ‘여성미술연구회’의 일원으로 한국 여성주의 미술의 대표 작가로 활동해 온 윤석남은 여성의 삶과 경험을 작업의 중심에 두고 이를 회화, 설치, 조각으로 구현해왔다. 특히 버려진 나무와 헌 목재를 활용한 조각으로 여성들이 살아온 시간과 삶의 흔적을 시각화했고, 한(恨), 토tem, 무속, 치유 등의 한국적 정서를 담아냈다. <어머니 1: 열아홉 살>(1993)은 총 6점으로 구성된 대표 연작인 <어머니>의 첫 번째 작품으로, 작가의 작업 세계를 상징하는 대표작이다. 작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특정 인물의 초상을 넘어 한국 사회를 살아온 여성들의 삶과 존재를 환기한다. 작가는 어머니를 단순히 자식을 위한 희생이나 모성의 상징으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여성의 삶의 태도와 근원적 생명력, 그리고 치유의 힘을 드러내는 존재로 바라보았다.

이건용(1942-)은 황해도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건용: 달팽이 걸음》(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4), 《이어진 삶》(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19) 등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이것은 개념미술이 (아니)다》(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6)를 비롯한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서울 11인의 방법전》(1977), 《한국현대미술전: 70년대 후반—하나의 양상》(1984), 기획초대전 《이건용: 논리, 삶, 일상》(1999) 등에 참여했다.

작가는 ‘ST(Space & Time 조형미술학회)’를 결성하고 ‘AG(한국 아방가르드협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1970년대 한국의 실험미술과 개념미술의 전개를 이끌었다. 당시 앵포르멜 및 한국 미니멀리즘 회화의 전통에서 벗어나 예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며, 설치, 퍼포먼스,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존 회화의 관습을 비판적으로 성찰했다. 특히 현상학과 언어철학에 기반하여 사건(event)과 사건 성립의 필연적 논리(logical)를 탐구하는 ‘이벤트-로지컬’ 개념을 바탕으로, 예술 행위의 논리와 신체, 장소, 언어의 관계를 실험했고, 1990년대에는 문화와 역사, 삶에 대한 관심으로 작업 세계를 심화시켰다.

〈신체드로잉 76-1-1999〉(1999)는 1976년부터 전개된 연작 〈신체드로잉〉의 일환이다. 이 작품은 화면 뒤에 선 채 팔을 앞으로 넘겨 매직 잉크로 수직형 선을 긋고, 그어진 선의 길이만큼 합판을 잘라내는 과정을 반복하여 완성한 것이다. 작품의 형식은 작가가 설정한 신체의 조건과 수행 규칙에 의해 결정되며 화면에는 행위의 과정이 기록된다. 이는 회화의 전통적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신체와 행위의 논리적 조건을 통해 화면을 구성하고, 행위 자체를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삼은 작가의 대표 작품이다.

임근우(1958-)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90년 삼성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한 이후 《작가는 고향의 양분을 먹고 산다》(강원대학교미술관, 춘천, 2023)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국내외 주요 단체전에 참여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제2기 서울현대미술제 창립전》(1991), 《제18회 서울현대미술제》(1992), 개인전 《임근우 전》(1994) 등에 참여했으며, ‘오리진회화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오리진회화협회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작가는 선사시대 유적과 고고학, 문화인류학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회화세계를 구축해왔다. 고인돌과 선사 유적지에서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원과 자아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지속해왔다. 〈코스모스—고고학적 기상도〉 연작은 거친 마티에르와 질석, 부조적 화면 구성 등 회화와 설치를 넘나드는 표현을 통해 현대문명의 양면성과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을 담아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고고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상향과 행복의 풍경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확장했다.

〈코스모스—고고학적 기상도〉(1995)는 제1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수상작이다. 작가는 평면 회화에 건축자재인 질석과 바인더, 밀랍 등을 활용해 입체적 요소를 더하고 화면을 파내는 기법으로 시간의 층위를 표현했다. 연천 전곡리에서 출토된 구석기 시대 돌연모(주먹도끼)와 기상도를 결합해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화면에 담았으며, 돌연모의 양면적 상징을 통해 인류문명의 발전과 현대문명의 문제를 성찰하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형적 실험은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기존 평면 회화의 고정관념을 깨고 표현 영역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종두(1964-)는 전남 순천 출생으로 전남대학교 한국화과와 중앙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백악미술관, 예술의전당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서울현대한국화전》(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2), 《젊은 시각-내일예의 제안전》(공평아트센터, 서울, 1994), 《2004 중앙 한국화 대전》(세종문화회관, 서울, 2004) 등 현재까지 다수의 개인전과 기획전에 참여하고 있다. 1988년 전국무등미술대전 우수상, 1991년 한국화대전 우수상, 1992년 제1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신진 한국화 작가 모임으로 일상의 소재와 실험상을 추구한 ‘오늘과 하제를 위한 모색전’ 동인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동인전을 비롯하여 《디딤과 도약, 시간의 메세지》(2001)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작가는 전통 채색기법을 바탕으로 강렬한 원색과 상징적 도상을 통해 인간 존재와 자연의 생명력을 탐구해왔다. 초기에는 〈생토〉 연작을 통해 실존과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화면에 담아냈으며 이후 〈천지인〉, 〈동행〉 연작으로 작업을 확장하며 인간과 자연,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구현했다. 석채와 분채를 중첩하는 전통 채색기법과 직접 제작한 목필 등을 활용한 실험적인 표현방식을 통해 한국 채색화의 현대적 가능성을 모색했다. 〈생토〉(1992)는 제11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부문 대상 수상작으로 작가를 한국화단에 알린 작품이다. 그는 생토를 살아있는 흙, 즉 인간 존재의 상징으로 해석했으며 현대인의 실존적 고뇌를 스러져가는 청동 유물의 이미지에 빚대어 표현했다. 그는 〈생토〉 연작을 통해 구상성과 상징화된 배경, 선과 면, 먹과 채색의 대립을 조화롭게 공존시키며 감각의 통합을 추구했다.

차대영(1957-)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91년 제1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젊은 모색 '90: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0) 등 국내 주요 전시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환원과 확산》(갤러리 기와, 서울, 2025) 개인전을 개최했다. 1980년대부터 '창조회', '시공회', '후소회', '신조형회' 등 소그룹에서 활동하며 아르코미술관에서 개최된 《B35-'89초대전》(1989) 및 《창조회전》, 《시공전》 등에 참여했다. 또한 《한국화 오늘의 상황전》(1983), 《'90 한국화 상황 모색전》(1990), 《한국화 물성과 시대정신전》(1991) 등 1980-1990년대 한국화의 주요 기획전에 참여했다. 1980년대 한국화의 현대화와 채묵화의 흐름 속에서 활동하며 먹과 채색을 활용한 조형 언어를 발전시켰다. 먹 위에 채색의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먹과 채색의 조화가 돋보이며 자연과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작업해왔다.

작가는 1980년대 <옛 이야기>, <숲의 이야기> 연작을 발표하며 자연을 주요 소재로 한 작품 세계를 전개했다. <옛 이야기>(1991)는 제1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부문 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작가가 1980년대 후반부터 전개한 <옛 이야기> 연작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먹을 바탕으로 붉은색과 노란색 등의 채색을 중첩한 화면에 자연과 건축물을 연상시키는 형상을 배치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전통적 소재를 현대적인 조형 언어로 풀어내면서도 친숙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현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최민화(1954-)는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2017년 제18회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했으며, 개인전 《천 개의 우회》(대구미술관, 대구, 2018), 《Once Upon a Time》(갤러리현대, 서울, 2020)를 개최하고, 《시대유감》(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8-2020) 등 주요 기획전에 참여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민중미술 계열의 연합 전시인 《전국민족미술인연합 창립기념전》(1995)을 비롯하여, 《공원 쉼표 사람들》(2003), 《트랜스POP: 한국·베트남 리믹스》(2007) 및 개인전 《최민화: 이십세기 연작》(2007) 등에 참여했다.

1982년부터 작가는 본명 대신 ‘민중은 꽃이다’라는 의미의 ‘민화(民花)’라는 예명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민중미술운동을 바탕으로 한국 현대사의 폭력과 사회적 모순, 민중의 삶을 표현주의적 필치와 강렬한 색채로 담아내는 회화를 전개했으며, 초기 〈부랑〉 연작과 1990년대 〈분홍〉 연작을 통해 사회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청춘을 담아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삼국유사〉, 〈20세기 회화의 추억〉 연작 등을 통해 역사와 기억을 탐구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분홍—양아치〉(1993)와 〈마로니에공원 4〉(2003)는 모두 아르코미술관 전시 《공원 쉼표 사람들》에 출품된 작품이다. 〈분홍—양아치〉는 1990년대 〈분홍〉 연작의 일환으로, 시위 현장의 붉은 화염과 흰색의 최루탄 연기가 섞이는 장면을 분홍색으로 표현하며 이를 인간에 대한 애정이 공존하는 상징적 색채로 탐구한 작품이다. 〈마로니에공원 4〉는 마로니에공원을 찾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도시 공동체의 일상과 삶의 풍경을 담아냈다.

Kang Dong-Suk (b. 1963) studied printmaking at Hongik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and completed doctoral coursework at Kyungsoong University. He received the Excellence Prize at the seventeenth *Juried Exhibition of the Korean Contemporary Printmakers Association* in 1997, the Grand Prize at the eighteen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in 1999, and the nineteenth Song Hyesu Art Award [Song Hyesu Misulsang] in 2023; his works are held in th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nd the Busan Museum of Art, among others.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major print exhibitions including the *26th Exhibition of Hongik Printmakers Group* (1998) and the *24th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1998).

Working chiefly in woodcut, Kang has drawn his subjects from human faces and expressions as well as images of nature. His hand-carved lines and dense, dynamic compositions convey the emotions of his subjects while stretching the formal possibilities of the print medium.

Ink—Shadow of the Tree II (1999) won the Grand Prize at the eighteen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Kang splattered ink across the woodblock with a funnel and brush, then carved into these traces with a knife to conjure the beating of a bird's wings. "I wanted to capture the movement of a bird now confined, but destined one day to soar," he said on receiving the prize. "By carving even the spatters of ink into the block, I sought a feeling at once dynamic and precise."

Kang Seunghee (b. 1960) was born in Jeju and studied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He has participated in major print exhibitions in Korea and abroad, including the Seoul International Print Biennial (1994) and the Kanagawa International Print Triennial (1998). He received the Grand Prize at the fifth SPACE International Print Biennial in 1988 and the Grand Prize in the print section of the ten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in 1991.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of Hongik Printmakers Group* (1987), the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1988), the Neo-formative Art Group's *B35-'90 Invitational Exhibition* (1990), and several editions of the *Exhibition of the Origin Painting Association*.

Having explored new ways of figuration through printmaking in the 1980s, Kang spent the late 1980s and 1990s making copperplate prints of the city inspired by a single theme: daybreak. Missing his native Jeju after moving to Seoul, he found in the city's streets at dawn, encountered during his morning jogs, a stillness and sense of mass that recalled Mt. Halla. *Day Break at 5:30—Summer of 1991* (1991) won the Grand Prize in the printmaking section of the ten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This work uses etching and aquatint to create images by corroding a metal plate, rendering the quiet landscape of daybreak in fine lines and delicate shading.

Kim Kulim (b. 1936) was born in Sangju, Gyeongsangbuk-do. In the 1970s he experimented with printmaking and video art in Japan, and in 1984 studied printmaking at the Art Students League of New York. He has experimented across and dismantled the boundaries of painting, installation, film, and performance. Through creating experimental works such as *Relics of Mass Media* (1969) and the *Meaning of 1/24 Second* (1969), together with his founding of the AG Group in 1969 and leadership of The Fourth Group from 1970, Kim played a leading role in shaping the Korean avant-garde.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Korean Art—Today's Method* (1979) and the *1980 Way Exhibition, Seoul*. He also held the solo exhibition *KU-LIM KIM* (1994), staged jointly with Dongsoong Gallery, and the invitational *Kim Ku-Lim: Traces of Existence* (2000). Recent solo exhibitions include *Yin and Yang* (Gana Art Center, Seoul, 2021) and *Kim Kulim*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23).

Building on the conceptual work of the 1970s and the collages of the early 1980s, Kim has adopted a practice moving freely across genre and medium. Since the mid-1980s, in his *Yin and Yang* series, Kim has taken yin and yang—an Eastern principle underlying the emergence and disappearance of images—as a central concept to probe the relation and circulation of opposing elements. *Yin and Yang 99-S, 207* (1999), one of this series, was made during his years in the United States. Across a gray-toned, divided picture plane it juxtaposes images of differing content and form, with fluorescent circles heightening the contrast. Structured through the opposition of unlike elements, the work lets its heterogeneous parts permeate and coexist with one another, giving visual form to his philosophical reflection on yin and yang.

Kim Hodeuk (b. 1950) was born in Daegu and studied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before earning his master's degree in East Asian painting at its graduate school. Since his first solo exhibition at Kwanhoon Gallery in 1986 he has held some thirty-five solo exhibitions, and has been invited to major exhibitions including *Contemporary Art Festival '87*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1987) and *CRACKS in the Concrete II from the MMCA Collection : A Glimpse into the World / Gazing into Eternit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18). He was active in the December Group and the Jae Sam Group [The Third Group], collectives that sought to challenge and critique the social ills of their time, and in Mukjo [Flow of Ink], which sought to establish new values for Korean painting. After taking part continually in their regular exhibitions at ARKO Art Center, he was later invited to the ARKO Art Center exhibitions *Rolling Space* (2004) and *100 Daehangro* (2009), and received the fourth Kim SwooGeun Cultural Award in 1993.

Kim renders the brush lines and bleeds of traditional ink painting—its splashed ink, broken ink, and graded ink washes—in a contemporary formal language, extending the base media of ink painting to hanji, cotton cloth, canvas, and hardboard. Pictorially, Kim shifts focus from the figurative nature of rocks and waterfalls toward more invisible elements such as wind and light. In this manner he has rendered nature's energy and motion in traces of line and ink, sustaining a radical spirit of experimentation in practicing the ink medium.

Wind (1998) was made by blowing powdered ink onto hardboard to explore the materiality and abstract possibilities of ink painting. The powder spreads of its own accord across the surface, creating a movement like drifting wind. Through the spreading ink and its material traces, Kim abstractly evokes the movements of nature—mountains and valleys, wind and air currents.

Min Joungki (b. 1949) was born in Anseong, Gyeonggi-do, and studied Wester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1970s he took part in the December Group and the Jae Sam Group [The Third Group], collectives that sought to challenge and critique the social ills of the time, and was a founding member of Reality and Utterance, the Minjung art collective formed in 1979.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the Kumho Museum of Art, Kukje Gallery, and the Yangpyeong Museum of Art,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13th Gwangju Biennale and shows at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d won the eighteenth Lee Jungseop Art Prize [Lee Jungseop Misulsang] in 2006. At ARKO Art Center he participated in numerous regular exhibitions of the December Group and the Jae Sam Group, and was invited to the survey *Min Joung-ki—WalkScape* (2004) and the exhibitions *Rolling Space* (2004) and *100 Daehangro* (2009).

In the 1980s Min borrowed from popular imagery to paint the lives of the people and the realities of Korean society. After moving to Yangpyeong in the late 1980s, his work shifted from offering a satirical view of contemporary society to an inquiry into landscape and place. In walking the mountains, rivers, and villages of this area, he developed the *Sansu* series, tracing the histories and traces of human life embedded in particular places. *Mt. Tongbang* (1992) marks the shift in his work between the 1980s and the 1990s. Drawn from his walks through the mountains and terrain around Tongbangsan in Yangpyeong, it renders in broad brushstrokes and a bird's-eye view the true face of the land, beyond the light and shadow of the city.

Park Sookhee (b. 1938) studied applied ar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rained in printmaking at the Kunstakademie Düsseldorf, and earned her doctorate in art history at the Westfälische Wilhelms-Universität Münster in Germany. From the late 1960s she held numerous solo exhibitions in Germany, served as chair of Korea Fiber Artists' Association, the leading body of Korean textile art, and received the Mokyang Craft Award of the Korean Crafts Council in 1992. At ARKO Art Center she participated alongside Lee Shinja in the first *Invitational Exhibition of Artisans* (1974) and in the exhibitions of Hanwool Artist Association, contributing to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international exchange of Korean textile art.

Moving beyond thread-centered weaving, Park expanded the formal possibilities of textile art by incorporating a variety of materials, including hanji, brush handles, and hemp cord. *The Wave of Venice* (1994), shown in her solo exhibition at ARKO Art Center, was her first work made using a weaving machine. Using fine thread, she experimented with a new form of weaving by continuously aligning multiple bands in parallel. After completing the weaving, she cut a square-shaped hole along the upper section of the work, seeking to disrupt the order of the composition.

Shin Bumseung (b. 1942) was born in Sariwon, Hwanghae-do, and moved with his family to Seosan, Chungcheongnam-do, after liberation. He studied art education at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nd at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ongik University, and earned his doctorate in art education from the Institute of Art Education, at Herzen University in Russia. He taught art in schools until 1999, then served as professor of art at Dong Seoul University until 2008. He received the Encouragement Prize at the JoongAng Fine Arts Prize [JoongAng Misul Daejeon] in 1978, the Grand Prize at the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in 1992, and the Seogryu Medal of the Order of Civil Merit, conferred by the President, in 1999. Active in groups including Shinkihoi and the Korea Watercolor Association, he participated at ARKO Art Center in numerous editions of the exhibitions of Shinkihoi as well as the *Korean Watercolor Exhibition* (1984) and the *6th Exhibition by Hongik M.A.E* (1994).

Grounded in the materials and techniques of Western painting, Shin has moved between figuration and abstraction to develop a painterly language of his own. Korean landscapes and everyday objects in his work appear through free brushwork and intense color, joining the formal language of Western painting to the expressive sensibility of Korean painting. *Myself—Delivery Room 92* (1992), the Grand Prize winner in the Western painting section of the eleven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carries onto canvas the painterly quality Shin felt in ceramics and the kilns that fire them. The surface is marked by his feeling for traditional subjects, swift brushwork, and a distinctly Korean sense of color.

Shin Hakchul (b. 1943) was born in Gimcheon, Gyeongsangbuk-do, and studied Wester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Through his work with Seoul Artists' Methods in the late 1970s he took part in many of the group's regular exhibitions at ARKO Art Center. 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including the Sao Paulo Art Biennial (1981) and the Gwangju Biennale (1995, 2002), and has held solo exhibitions including *Shin Hakchul: Invitational Exhibition* (Seoul Museum, Seoul, 1982) and *Shin Hak-chul: The History of Modern Korea* (ARKO Art Center, Seoul, 2003). He received the 1st Minjok Art Prize in 1991 and the 16th Kumho Art Award in 1999.

A leading figure of Minjung art, Shin has sought to voice the sorrows and hopes of the people through varied formal means—object and collage work in the 1970s, photomontage from the 1980s—and is best known for his *Modern Korea History* series. By recomposing historical photographs and mass-media imagery, he renders the lives of the people and the contradictions of the age in a collective form, advancing a critical view of history and the present.

From the early 1980s Shin composed on canvas the images of major events, figures, and objects from Korea'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n his work, disparate times, events, and people are piled up within a single frame, and heterogeneous spaces intermingle. *History of Contemporary Korea 802* (1994) shows this distinctive style. By rearranging scenes of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s photomontage, it increases the density of the canvas through the narrative generated by its entangled objects and the effect of their abstract distortion.

Yang Mankee (1964–2020) was born in Geumsan, Chungcheongnam-do, and studied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He served as professor of Western painting at Duksung Women’s University and won the Grand Prize at the fifteen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in 1996 and the Artist Prize at the eighth Ha Chong-Hyun Art Prize in 2008. Active in the Origin Painting Association and Hongik Printmakers Group, he participated in their regular exhibitions at ARKO Art Center, as well as *The New Generational Tendency in Korean Contemporary Art: Frame or Time—From Photography* (1998) and *Art Museum in Image* (2000).

Beginning in painting, Yang widened his practice across computer, video, installation, and interactive art, and from the 1990s presented experimental media works that dissolved the border between painting and digital technology. Among his defining works is *Mimesis-Scape* (2009), a media facade installed on the exterior of Seoul Square.

Garden of DARWIN (1996), the Grand Prize winner at the fifteen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takes the birth and extinction of living things as its theme. “My work begins from the human cultural environment that arises out of nature, and from the evolutionary spirit of Darwin,” he said on receiving the prize. On a panel made by applying styrofoam and polycoat to canvas, the relief-like matière, fossil imagery, and a television screen connect the worlds of past and present; patterns of fossils and natural cycles cover the panel, into which is set a monitor showing a photograph of ferns. The judges at the time praised the work as one that “gave new value to materiality and offered a new interpretation of the picture plane.” One of a series drawn from Darwin’s *On the Origin of Species*, alongside *Room of DARWIN* and *Earth of DARWIN*, the work opens a view onto his practice, where images of nature overlap with the traces of humans and things.

Yang Juhae (b. 1955) entered the sculpture department of Hongik University before moving to France, where she graduated from the École d'art et d'architecture de Luminy, Marseille, and completed the DEA at the département d'Arts Plastiques, Université de Paris 8. She held her first solo exhibition at Space Gallery in 1983 and was named Artist of the Month by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in 1987. She won the Suk Nam Arts Award in 1990 and has participated in major exhibitions at the Sungkok Art Museum,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d elsewhere. At ARKO Art Center she showed her work in *Diana's Song: Digital Dreams, Analogue Desires* (2001) and *Park_ing* (2003), and in the solo exhibition *Juhae Yang: Road on the Road Ends* (2005).

Repeating the elemental forms of the dot and the line, Yang has moved between painting, object, and installation in search of a visual language of balance and harmony. Her planar and installation works in colored dots and barcodes are her best known works. These carry a simple vocabulary of drawn lines, dotted marks, and hatching onto the walls and columns of buildings, and she has extended this practice into the public realm.

Untitled—Nobang Patchwork Quilt (1999) was made from a patchwork quilt left by the artist's maternal grandmother. To prolong the life of cloth no longer usable as bedding and destined to rot away, Yang painted the vanishing object, marked it with dots, and coated it with varnish. Through the color and dots added to the worn scraps and the traces of a repeated hand, she calls an object whose use is spent back into the realm of living, disclosing the strata of time in a new formal language of colored dots.

Yun Suknam (b. 1939) was born in Manchuria and studied English literature at Sungkyunkwan University, and later at the Pratt Institute and the Art Students League of New York. She has held numerous solo and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solo shows *The Eyes of Mother* (Kumho Museum of Art, Seoul, 1993) and *Woman and Reality: Laughing Women* (21st Century Gallery, Seoul, 1994), and the exhibitions *Eonni is Back*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2008) and *Connecting Bodies-Asian Women Artist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24). At ARKO Art Center she held her first solo exhibition in 1982 and participated in '84 3rd Ingan [*The Human*] Exhibition (1984), staged by Ingan, a collective devoted to the artistic expression of human existence. She also contributed to the *Inaugural Exhibition of Korean People's Artists Association* (1995), and staged the solo exhibition *Yun Suknam 1,025: With or Without Person* (2008).

A leading figure in Korean feminist art through her work in the Siwol Gathering and the Women's Art Research Association in the 1980s and 90s, Yun has placed women's lives and experience at the center of her practice, giving these concerns form in painting, installation, and sculpture. Working chiefly with discarded and old wood, she has visualized the time and traces of women's lives, carrying "han (a Korean sense of sorrow and unresolved grief), totemism, shamanism, and healing". *Mother 1: 19 Years Old* (1993), the first of her defining six-part *Mother* series, is emblematic of her practice. Rooted in her own memory of her mother, it evokes not one portrait but the lives and existence of women across Korean society. Rather than portraying her mother simply as a figure of sacrifice or a symbol of motherhood, Yun depicts her as embodying an attitude toward life grounded in caring and love for others, while also revealing women's primal vitality and capacity for healing.

Lee Kun-Yong (b. 1942) was born in Hwanghae-do and studied Wester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including *Lee Kun-Yong: In Snail's Gallop*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2014) and *Relay-Life* (Busan Museum of Art, Busan, 2019). 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is is (Not) Conceptual Ar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2026). At ARKO Art Center he took part in the *11 Men's Way Exhibition* (1977), *Korean Contemporary Art: One Aspect of the Late 1970s* (1984), and the invitational exhibition *Lee Kun-Yong: Logic, Life, Commonplace* (1999).

Lee formed ST (Space and Time), and as a member of AG (Korean Avant-Garde Association) he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experimental and conceptual art in the 1970s. Breaking from the traditions of Art Informel and Korean Minimalist painting, he posed fundamental questions about art and critically examined the conventions of painting through installation, performance, and objects. Grounded in phenomenology and the philosophy of language, he proposed the 'event-logical' concept—probing the event and the logic necessary to its occurrence—to test the relations of logic, body, place, and language in the artistic act. In the 1990s he further deepened his practice with an interest in culture, history, and life.

Bodyscape 76-1-1999 (1999), from *Bodyscape* series begun in 1976, was made by standing behind the surface, reaching an arm forward to draw vertical lines in marker, then repeatedly cutting plywood to each line's length. Its form is fixed by the bodily conditions and rules of performance the artist set, its surface recording the process of the act—a signature work moving beyond traditional painting through the logic of body and action.

Lim Geunwoo (b. 1958) studied Wester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Since his first solo exhibition at Samjeong Art Space in 1990 he has held numerous solo shows, including a solo exhibition a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rt Museum (Chuncheon, 2023), and participated in major group exhibitions at home and abroad. At ARKO Art Center he took part in the 1991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1991), the 18th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1992), and held a solo exhibition there in 1994. Additionally, as a member of the Origin Painting Association, he has continued to participate in its regular exhibitions.

With a practice grounded in prehistoric remains, archae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Lim has built a painterly world linking past, present, and future. Drawing on his childhood experiences of dolmens and at prehistoric sites, he has pursued sustained questions of human origin and self-identity. His *Cosmos-Archeological Weather Map* series, moving between painting and installation through rough matière, vermiculite, and relief composition, reflects on the duality of modern civilization and human existence. From the 2000s he extended this archaeological imagination toward landscapes of utopia and happiness.

Cosmos-Archeological Weather Map (1995), the Grand Prize winner at the fourteen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renders the strata of time by adding three-dimensional elements—vermiculite, binder, wax—to the flat canvas and carving into its surface. Joining a Paleolithic hand axe excavated at Jeongok-ri, Yeoncheon, with a weather map inside a single pictorial frame, Lim sought to reflect on the advance and problems of human civilization through the axe's dual symbolism, and to suggest new possibilities for the future. This formal experiment was praised by the jury for breaking the conventions of flat painting and expanding its expressive range.

Leem Jongdoo (b. 1964) was born in Suncheon, Jeollanam-do, and studied Korean painting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Western painting at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He has held solo exhibitions at Baekak Museum and the Hangaram Art Museum in Seoul Art Center, and continues to participate in exhibitions including *Seoul Contemporary Korean Painting Exhibition* (Seoul Museum of Art, Seoul, 1992) and *2004 JoongAng Korean Painting Exhibition* (Sejong Center, Seoul, 2004). He won an Excellence Prize at the National Mudeung Art Exhibition in 1988, an Excellence Prize at the Korean Painting Exhibition in 1991, and the Grand Prize in the Korean painting section of the eleven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in 1992. At ARKO Art Center he was active in the Research Exhibition for Present and Future, a group of emerging Korean-painting artists, and participated in *Steps and Leaps, The Message of Time* (2001).

Grounded in traditional color techniques, Leem's work explores human existence and nature's vitality through intense color and symbolic imagery. His early *Live Soil* series gave form to a philosophical reflection on existence and being. This he later expanded into the *Heaven-Earth-Human* and *Company* series, embodying humanity, nature, and the values of life and coexistence. Layering mineral and powder pigments and using experimental means such as his own hand-made brushes, he sought a contemporary path for Korean color painting. *Live Soil* (1992), the Grand Prize winner in the Korean painting section of the eleven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first brought Leem to wide attention. He took "live soil" to be representative of the living earth, and a symbol of human existence, likening modern existential anguish to a crumbling bronze relic. Through the *Live Soil* series, he sought to integrate the senses by bringing figuration and symbolic backgrounds, line and plane, and ink and color into harmonious coexistence.

Cha Daeyoung (b. 1957) studied Korea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its graduate school. He won the Grand Prize in the Korean painting section of the ten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Daehanminguk Misul Daejeon] in 1991, and participated in major domestic exhibitions including *Young Korean Artists '90: Korean Painting in a New Direc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1990); he recently held the solo exhibition *Reduction & Diffusion* (Gallery Kiwa, Seoul, 2025). Active from the 1980s in the small groups Chang-jo Group, Si-Gong, Husohoe, and Neo-formative Art Group, he took part widely at ARKO Art Center in the *B35-'89 Invitational Exhibition* (1989), the *Exhibition of Chang-jo Group*, the *Exhibition of Si-Gong*, and others, as well as major Korean painting exhibitions of the 1980s and 90s, including *Materiality of Korean Painting and the Spirit of the Age* (1991).

Working toward the modernization of Korean painting within the ink and color painting movement of the 1980s, Cha developed a formal language combining ink and color, layering color imagery over ink to forge a practice noted for the harmony of the two, grounded in his interest in nature and traditional culture. In the 1980s he presented his *Old Story* and *Forest Story* series, developing a body of work centered on nature. *Old Story* (1991), the Grand Prize winner in the Korean painting section of the tenth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is emblematic of the series he pursued from the late 1980s, layering red and yellow color over ink to arrange forms recalling nature and architecture. The jury of the day praised its rendering of traditional subjects in a contemporary formal language that remained familiar and accessible.

Choi Minhwa (b. 1954) was born in Seoul and studied Wester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He received the eighteenth Lee Inseong Art Prize in 2017, held the solo exhibitions *CHOI Minhwa: A Thousand Detours* (Daegu Art Museum, Daegu, 2018) and *Choi Minhwa: Once Upon a Time* (Gallery Hyundai, Seoul, 2020), and participated in major exhibitions including *From SeMA GanaArt Collection: Regrettable Times* (Seoul Museum of Art, Seoul, 2018–2020). At ARKO Art Center he took part in the *Inaugural Exhibition of Korean People's Artists Association* (1995), an exhibition organized by a group associated with Minjung art; *Park_ing* (2003); *transPOP: Korea Vietnam Remix* (2007); and the solo exhibition *Choi Minhwa: The 20th Century Series* (2007).

From 1982 Choi began using, in place of his given name, the pen name Minhwa (民花), meaning “the people are flowers.” Grounded in the Minjung art movement of the 1980s, he developed paintings that depicted the violence and social contradictions of modern Korean history and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through expressionist brushwork and intense color, portraying youth adrift in social reality through his early *Vagrancy* series and the *Pink* series. Since the 2000s he has continued to probe history and memory through the *Once Upon a Time* and *Remembrance of Twentieth Century Paintings* series. *Pink—Yangachi, Street Bums* (1993) and *Marronnier Park 4* (2003), both shown in the ARKO Art Center exhibition *Park_ing*, exemplify his practice. The former work, part of the *Pink* series of the 1990s, renders in pink the mingling of a protest's red flames and white tear-gas smoke, exploring the color as a symbol embodying human affection even amid conflict. The latter piece captures the everyday life and scenery of the urban community through the varied figures who visit Marronnier Park.

